

과학교육연구센터 개소



과학교육연구센터 개소식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에 보급, 확산하는 과학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과학교육연구센터'가 13일 한양대에 설립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한양대에 과학교육연구센터를 지정·운영키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설립작업을 마치고 5월 13일 오 명(吳明)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과학교육연구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정부예산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받아 최근의 과학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과 과학교수 연수프로그램 등을 마련, 교육 현장에 보급하게 된다.

초대 센터장에는 최정훈 한양대 교수(화학과)가 선임됐고 한양대·경상대 교수, 경기여고 등 14개 초·중·고교 과학교사 등 20여 명이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2004 한국인터넷 백서' 발간



한국전산원은 국내 인터넷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04 한국인터넷 백서'를 발간했다. 올해 다섯 번째로 발간된 인터넷 백서는 특집, 인터넷 이용환경,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기반 및 솔루션, 인터넷 정책, 세계 인터넷 현황, 부록 등 5편 413쪽으로 짜여져 있다. 백서에는 인터넷 이용 현황에 관한 주요통계 자료 등이 담긴 CD롬도 추가됐는데 국내외 인터넷 동향 및 관련 산업 현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의 : 한국전산원 02-2131-0248)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 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출품부문으로는 생활과학부문 I·II 학습용품부문, 과학완구부문, 자원재활용부문 등 5개 부문이다. 전시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며, 접수는 6월 4일까지다. 대통령상에는 학생에 200만 원의 장학금과 상장, 지도교원에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이외에 국무총리상 등 다수의 상을 수여한다. (문의 : 국립중앙과학관 042-601-7940)

과학영재교육원 4개 증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초·중등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을 4개 대학에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6월 4일까지 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설치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경기 지역내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하고,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학생수가 3~9배나 많으나 아주대학교 한 곳에만 과학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어 2004년도 입학 경쟁률이 25 : 10이 넘었으며, 특히 경기 북부의 학생은 아주대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학기술부는 서울·경기 지역에 2개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경기지역의 학생이 서울 소재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8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 5천 명의 과학영재들을 교육하였는데 과학영재교육원을 졸업한 중3 학생 중 약 24%가 과학고로 진학하고, 2003년에는 66명의 학생이 과학영재학교(정원 144명)에 진학하는 등 과학영재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문의 : 한국과학재단 과학교육진흥팀 042-869-6820)



생후 3일



생후 6일

황새 자연번식에 성공

조류복원사업은 우리 나라가 세계 수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텃새 황새가 절종되어 96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 황새복원센터를 설치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8년만인 5월 9일에 아기황새 2마리, 5월 16일에 1마리를 자연번식하는데 성공하였다. 황새는 1968. 5. 30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되었으며,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절종되어, 96년부터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청원군)는 1996년 한국교원대학교내에 황새복원연구센터(소장 박시룡 교수)를 설립하여 황새 인공증식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번에 3마리가 자연번식을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5월 9일 태어난 두 마리 아기황새의 몸무게는 70~80그램이었던 것이 열흘이 지난 5월 18일 현재의 몸무게는 7배가 늘어난 550그램 정도이며, 먹이로는 7~8cm크기의 미꾸라지를 한번에 5~6마리씩 하루에 12번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등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상태로 방사를 하기 위한 야생적응 훈련을 받게 되며, 야생방사는 50개체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방사장소를 신중히 선정하여 자연으로 방사 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세계적 희귀조인 황새의 복원사업 및 방사장 마련 등을 강구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텃새인 황새를 볼 수 있도록 황새 텃새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천연기념물 황새보존 및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조만간 이들의 이름을 공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느삼(위)과 자생군락지(아래)

천연기념물 개느삼 인제에서 발견

5월 중순경 강원 인제지역에서 개느삼의 자생분포지가 있는 것을 확인되어, 관련 연구기관에 현지조사 하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제군 북면과 남면 2곳에서 개느삼이 군락지로 자생하는 것을 발견한 인제국유림 관리소 임승하 팀장은 꽃과 자생지를 촬영하였으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자생지를 학계 이외에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개느삼은 미선나무나 금강초롱과 같은 특산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다.

개느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18년 북한의 함경남도 북청이었고 그 후 함경남도 신흥, 평안남도 맹산군에 드물게 분포지가 있었다. 남한의 양구에 있는 자생지가 발견되었고, 남한에서의 첫 자생지를 양구에서 찾은 것이다. 물론 이곳은 특산식물 개느삼의 남한계를 이루는 분포지 등의 가치 때문에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37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ST**

정리_ 이재성 기자 jsl@kofst.or.kr